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미국에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등 금리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의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 코로나19 금융지원]

지난주 초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①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21.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②정책금융기관*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1.9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중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도
당초 1년으로 설계되었던
③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20.4.1일~'20.12.31일 시행, 총 3조원 지원, 금리 1.5%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④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21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올해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주요 과제입니다.

우선, 금년 4월말 도래 예정인
⑤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⑥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 자산인수를 위해 '20.7월부터 가동, '20년 중
총 1.1조원 지원(부동산 6,580억원, 선박 4,171억원)

올해에는 찾아가는 면담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보다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LP참여)도 활성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지원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현황 및 점검계획]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실물경제 동향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되,
부채의 양적·질적 수준을 질서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투기목적의 주택구매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주택자의 경우)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금년 상반기부터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은행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 현황(건수) : ('21.上) 9,895 ('21.下) 6,433
주요은행 전입약정 이행기간 도래 현황(건수) : ('21.上) 18,188 ('21.下) 2,657

금감원에서는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마무리 말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충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발맞추어 온 금융업권의 방역지침 준수 실태에 대해 자체점검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자체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도 지속 실시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경제회복의 대전제입니다. 철저한 방역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